



충북지부 검사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일까?

각자의 소망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건강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 하나 각개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때 이 사회가 정의롭고 한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세계의 주역으로 발돋움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야말로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그속에서 보람을 찾고 일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가족들이야말로 말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을 것이

다.

어느 지부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우리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검사소.

찌든 도심의 공간에서 벗어나 상쾌한 공기와 접할 수 있는 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아, 내원자들은 병원에 들어 선다는 진입감이 없어 마음이 무척 편안하다고 한다.

친절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우리 충북지부 검사소의 전통이라면 아침이면 누구랄 것 없이 먼저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존경하며 격려해 줌으로써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상호간에 어떠한 허물과 벽이 없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단합

이 잘되는 것이 큰 자랑거리라고 여기고 있다.

우람한 체격에 부리부리한 눈매, 보기 좋게 희끗희끗 세어버린 머리와 걸걸한 목소리로 인해 처음 대하는 직원 이라면 그만 기가 질려버리는 소장님. 또한 매사에 신중하고 철두철미 하시지만 우리 검사소 직원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자상하고 인간적인 미를 풍기시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정확한 검사와 Data만이 우리 건강관리협회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종일 자동분석기와 씨름을 하며서도 보람을 느끼신다는 우리 최승렬씨.

딸일까? 아들일까?

몇달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김여사. 처녀시절 아빠랑 열렬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으로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고추달린 놈이라고 격려하며 용감하게 낳으라고 큰소리 쳤건만 “그저 그래요. 하는 힘없는 전화에 그만 모두들 웃어버리고 말았다. 공주로서 슬기롭고 어질게 살아가라며 “한슬기”라고 지었단다. 이 험한 세상 슬기롭고 어질게 성장할수 있도록 슬기의 앞날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자그마하면서도 빈틈없고 매사의 일처리에 나무랄데 없어 노총각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 검사실의 꽃 배간호원을 비롯, 처녀스럽게 싱그러우면서 자신은 수수하고 평범한 여성이라고 강조하지만 내원자 처리나 출장검사엔 결혼한 여성답지 않게 무척 활동적이며 적극성을

띠는 빼여사. 가냘픈 몸매에 하얀 캡을 쓰고 있노라면 정작 그녀는 사랑으로 가득 찬 천사마냥 아름답기 그지없다.

언제나 친절과 봉사로써 내원자들에게 영락없이 막내 며느리 감으로 점찍어 놓는 탕자처럼 상큼한 우리 김간호원. 후배들의 따뜻한 언니로서 역할을 다하는 이여사. 연일 계속되는 출장에도 짜증이나, 불평없이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계장의 마음으론 무척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우리 검사실에 밟지 않는 애교로써 검사소 분위기를 조성해 없어서는 안될 Miss 최. 이 가을이 다가기 전 꼭 멋진 사랑을 하겠다며 백마탄 기사찾아 하루도 빠짐없이 출장검진차에 탑승하지만 언제나 웃음이 떠날 날이 없다. 또한 우리 검사실에 화기에애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유난히 시끄러운 소음의 교향악을 연주하시는 자칭 세척실장으로서 굿은 일 성가신 일 다맡아 처리하며 검사소 여직원들의 인생상담까지도 도맡아 처리해 주시는 김인자 아주머니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 의식속에서 아끼며 신뢰하면서 우리 충북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우리 검사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국장님을 비롯 각 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타 지부보다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 발전하는 검사소가 될 것을 소장님과 전 직원들의 이름을 빌어 다짐하는 바이다.

(검사계장 곽효왕)